

‘안전한 추석나기’...전남도, 다중시설 107곳 집중 안전점검

31일까지 전통시장·버스터미널·철도역 등 민관합동 점검 22개 시·군, 소방서·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추진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다중이용 시설 107곳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도와 22

개 시·군, 소방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추석 연휴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물의 각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

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46곳, 버스터미널·철도역 15곳, 레저시설 19곳, 전시관 14곳, 유원지 11곳, 영화관 2곳이다. 건축·전기·소방·가스·승강기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 등 결함 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의 관리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시설안전기준 등 법적기

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우면 명절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마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위험구역 설정과 함께 사용금지,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위법 여부에 따라선 과태료,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도민이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해 제거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임만규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동하는 전차들. 한미연합연습 ‘울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22일 오전 경기 파주시 한 훈련장에서 전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주식투자 고수익’ 속여 15억대 투자사기 일당 7명 구속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27명에게 15억원 가로채

경남 양산경찰서는 수익성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명으로부터 약 15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1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선물 옵션 거래 및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문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수익의 사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 모집(총괄) 및 전달, 바람잡이 등 다양한 역할을 점조직 형태로 분담하는 등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직적 분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대표통장과 휴대전화를 모집하는 등 범행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가운데 주범격 피의자들은 계좌

(통장)나 휴대폰 대여(제공) 등으로 가담한 일당들이 경찰에 출석할 때 처벌을 회피하는 진술 방법 등을 교육시켜, SNS 대화 내역을 위장·조작해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고수익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원숭이두창 확진 전세계 4만명 돌파

89개국서 4만1269명 확진...일주일 간격으로 20%씩 증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가 1주일 간격으로 20%씩 증가하는 빠른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백신을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4만명을 돌파한 뒤 19일 기준 4만1269명을 기록했다. 아워월드인데이터 통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89개국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1만4050명의 확진자를 보고했다. 스페인(5792명), 브라질(3656명), 독일(3266명), 영국(3201명), 프랑스(287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64명 수준이었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7월1일 310명, 8월1일 883명으로 급등한 뒤 8월 중순까지 800~9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원숭이두창 감염 건수가 일주일 간격으로 20%씩 늘고 있다며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확산 억제를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자문드 루이스 WHO 원숭이두창 기술 책임자는 “일부 돌파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는 백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100%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처음부터 이 백신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원숭이두창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감염될 경우 원숭이두창이 종식되지 않고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남아있게될 가능성이 크다. 의학 전문지 랜싯이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동거하는 두 남성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됐는데, 이들이 병원에 다녀간 후 12일 만에 반려견인 이탈리아 그레이트하운드에게서 원숭이두창 증상이 발견됐다. 이 반려견은 남성들과 유사한 피부 병변 증상을 나타냈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남성은 이 개와 같은 침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원숭이두창은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동물을 껴안거나 쓰다듬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한 반려동물들은 가장 최근 접촉을 기점으로 21일 동안 다른 동물들, 사람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 이외의 반려동물도 원숭이두창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로리 텔러 미국 수의학학회 회장은 “실험 결과 토끼와 쥐도 구강과 비강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원숭이두창의 징후가 나타났다. 어린 토끼도 다른 토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양이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감염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